눈감은 정부, 돈벌이 급급한 기업이 낳은 '人災 공화국'

출항 준비부터 사후대처까지 총체적 부실이 부른 대참사

'세월호 침몰사고'는 기본과 원칙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남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 창출'에만 골몰했던 업체는 오래된 여객선을 헐 값에 사 선체를 개조하고 짐을 더 실었다. 정부부처는 규제를 푼다는 명목 하에 법 개정에 나섰고, 기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위급 사태가 되자 사회지도층은 책임을 피했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정부부처들은 우왕좌왕하며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불렀다. 정치인들은 얼굴 내보이는데 치중하는 사이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의 가슴 속엔 허탈과 무기력함만 남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OECD 회원국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이라는 게 이를 지켜본 지역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광주일보는 사고 이전부터 사고 발생, 이후 대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한다.

20일 새벽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과 대화를 마친 정홍원 국무총리가 탄 차량이 미흡한 구조활동에 항의하는 실종자 가족들에 둘러싸여 멈춰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허술한 관리·감독 선체개조·과적·무리한 운항
재난 대처 무방비 골든 타임 놓쳐 희생자 늘어
오락가락 무대책 무책임한 정부 유족 두번 울려

◇선체 개조, 과적, 무리한 운항=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사용 가능 연한을 5년 연장하자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일본으로부터 6586t의 세월호를 매입, 객실 증설에 나서 정원을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렸다. 덕분에 무게도 6825t으로 불었다. 1994년 건조된 노후 여객선을 싼 값에 가져와 정원을 늘려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규제 완화'였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와 영업을 시작한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출항 전 기재한 점검보고서와는 달리 1157t의 화물과 차량 180대를 실었다. 이는 기준보다도 더 실은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 차량에 들어있는 화물까지 포함하면 '과적'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화물 적재량이 얼마나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청해진해운은 물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무게를 정확히 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밤 9시께 인천여객터미널을 출항한 여객선은 세월호 단 1척이었다. 다른 여객선이 짙은 안개로 운항을 포기했으나 강행했고, 이같은 무리한 운항이 결국 선장이 아닌 3등 항해사가 조류가 강한 맹골수도 해역을 맡게 한 것으로 합동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출항시간이 지연되면서 항해사별 운항 구간이 변경돼 1등 항해사 대신 맹골수로 운항이 처음인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은 것이다.

◇선장의 탈출, 재난 대처 무방비, 구조 지연=범정부사고수습대책본부가 20일 오후 3시 진도군청에서 공개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세월호의 사고 당일 교신 녹취록에 따르면 오전 9시6분부터 오전 9시37분까지의 교신을 계속했다. 거리가 먼 제주관제센터에는 이보다 이른 오전 8시55분 신고했다.

이준석(69) 선장은 오전 9시37분에서 38분으로 넘어가기 직전 교신이 끊긴 직후 승객, 승무원 등 150~160명과 함께 또는 그보다 일찍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 선실에는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인 등 300여 명이 여전히 "선실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안내방송을 믿고 기다린 시점이다.

선장은 물론 항해사, 조타수 등 선박직이 모두 여객선을 떠나면서 구명정이나 구명벌 등 구명장비도 쓸모 없게 됐다. 승객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여객선의 '리더'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 신고 후 구조 방식에 대한 불만도 크다. 16일 오전 8시58분 목포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사고가 접수된 뒤 세월호가 침몰한 오전 10시30분까지 1시간32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객선 내에 머문 학생과 일반 승객을 구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구조 인력과 첨단장비의 투입이 제때 이뤄졌다면 이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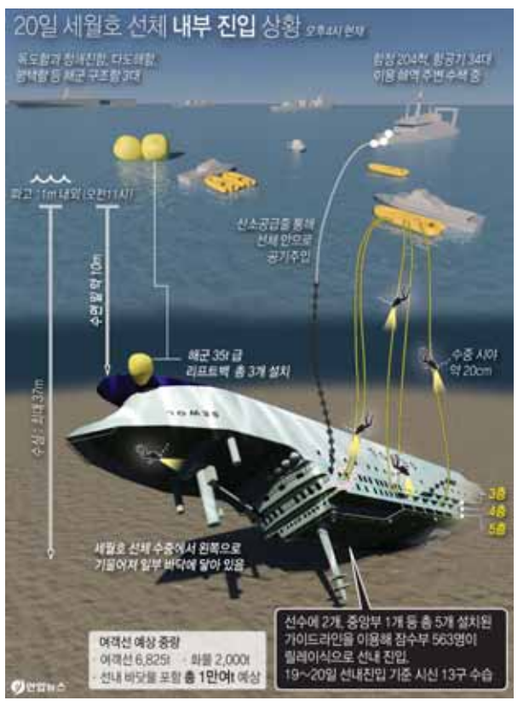
◇허둥대는 정부부처, '불신' 발표, 안맞는 손발=지난 17일 사고 바로 다음날 진도실내체육관에 주저 앉은 실종자 가족들을 더 괴롭힌 것은 무책임한 정부부처의 대응이었다. 책상 위에 각 부처 및 기관의 명패를 달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가족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못했으며, 구조 현장에 대한 정보는 오로지 언론을 통해서 전해듣는 정도였다.

애타는 가족들 앞에 나타난 국회의원, 각 부처 장관 등 정치인들은 몇 마디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쫓겨나기 일쑤였고, 이후 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현장 연결 화상 시스템 구축, 책임 있는 관계자의 브리핑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탑승자와 구조자 수가 오락가락하고, 침몰한 세월호 선내 진입 사실에 대해 각 부처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는 등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기는커녕 불신과 분노를 주기 충분했다.

세월호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뒤늦게 리프트백(공기주머니)을 설치했지만 결국 19일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겼으며, 잠수부들의 작업을 돕기 위한 바지선도 19일 오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고 있는 시점인 20일 밤에야 수중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원격수중탐사 장비 ROV가 미국 기술진과 함께 사고현장에 오는 것도 실종자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천억 최신 구조함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
〈통영함〉



첨단 해난구조장비 초기 투입 안돼 가족·국민 공분

"작년에 진수한 최신 구조함을 성능 검증이 안돼 투입할 수 없다니 말이 되는가", "수천억원을 들여 통영함을 구축하면 뭐하나, 쓰지도 못할 것을…."

1590억원을 들여 건조한 최신 구조함 '통영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국방부 발표에 실종자 가족과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또 '플로팅 도크', '리프트 백'(공기주머니) 등 첨단 해난장비가 있었음에도 사고 초기에 투입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키우고 있다.

통영함은 지난 2012년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이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3500t급 최첨단 수상구조함이다. 고장으로 기동할 수 없거나 좌초된 함정, 침몰 함정의 탐색 및 구조·인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통영함에 탑재된 음파탐지기·수중로봇 등의 장비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투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조한 지 1년7개월이 지나도록 장비 성능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천억을 들여 건조해놓고 1년7개월동안 장비점검도 하지 않았다니, 통영함이 장식품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첨단 해난장비의 뒤늦은 투입 등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고 해역과 멀지 않은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는 바다 위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인 '플로팅 도크'가 있다.

이 플로팅 도크는 해수면 아래로 최대 24m까지 가라앉을 수 있고 최대 8만t 무게까지 부양할 수 있다. 길이도 335m에 폭은 70m로, 146m와 22m 크기의 세월호를 싣기에는 충분하다.

개당 35t의 부양력을 가진 공기주머니 '리프트 백'의 뒤늦은 투입도 안타깝다.

이들 해난 장비를 사용했다면 수중으로 완전히 침몰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 승객을 구조할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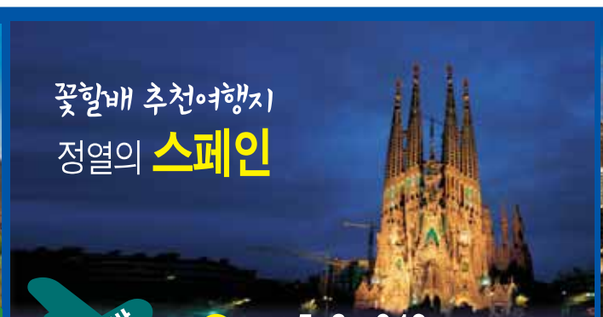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화사한 봄나들이 떠나세요!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가람여행사 [남구 봉선동 이마트 2층] 062)653-5230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 첨단LC타워 1층] 062)431-0102

무안출발 상품
[CCPF01-MUX]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299,000원~ 출발일 5월9일, 14일
※포함사항: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마사지" 체험, 상해 서커스 관람, 태가촌, 동파육 현지 특식
※불포함 사항 : 유류할증료, 단체비자, 가이드/기사 팁
[CHAF05-NX] 홍콩*마카오 자유여행 4일 899,000원~ 출발일 5월 1일(목요일)
※포함사항: 왕복항공권(일반석), 호텔2박 숙박료, 1억원 여행사 보험
※불포함 사항 :유류할증료&항공TAX, 교통비, 전일정 식사, 개인경비

무안출발 2014년 04월 09일 ~2014년 6월 04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CSPF01-CZ1] [캐주얼] 이강유람*관암동굴 계림/양삭 4일 499,000원~ 출발일 수요일
※호텔: 4성급 호텔
※특전: 이강유람, 관암동굴, 서가재래시장, 세외도원
※특식:토란연 정식
[CSPF01-CZ2] [캐주얼] 인상유삼저* 발마사지 계림/양삭 4일 699,000원~ 출발일 수요일
※호텔: 준5성급 호텔
※특전: 인상유삼저[US$ 45 상당],발마사지(팁$5 불포함)
※특식: 삼겹살 무제한, 토란연 정식
[CSPF01-CZA] [클래식] 인상유삼저* 양강사호* 용승온천 계림/양삭/용승 5일 999,000원~ 출발일 토요일
※호텔: 준 5성급 호텔 및 4성급 호텔
※특전: 인상유삼저 VIP석[US$ 55 상당], 양강사호 유람선[US$40 상당], 요족마을, 용승 온천욕 체험, 발마사지(팁 포함)
※특식:삼겹살 무제한, 사천 샤브샤브, 토란연 정식
CSPF01-CZC [클럽매드] 계림 4일/5일 1,099,000원~ 출발일 수, 토요일
※리 조 트 : 계림 클럽메드
※포함사항: 전 일정 식사, 공항 (-)계림 클럽메드 교통권 제공
※불포함 사항 : 유류할증료, 클럽메드 회원 가입비, 중국 비자 발급 비용



인천출발 KE 2014.5.9~6.13 주3회(월,수,금) OZ 2014.5.13~6.13 주2회(화,금)
[EMP363-KEH] 하나TV&쇼핑 스페인일주 10일 2,490,000원~ 출발일 5월~ 월/수/금요일
※특전 : 개인용 수신기 가용, 3성급+캐주얼급의 4성급 호텔 2박 업그레이드, 50인승 대형버스 이용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 공동경비, 가이드/기사TIP,개인경비
[EMP360] 캐주얼 스페인/포르투갈 9~10일 2,890,000원~ 출발일 매주 월,화,수,금요일
※특전 : 4성급 호텔 2박 업그레이드, , 성가족성당&구엘공원 내부관람, 전일정 개인용 수신기 사용, 항상 50인승 대형버스 및 인솔자 동행 보장
[EMP363] 클래식 스페인 항공일주 9~10일 3,790,000원~ 출발일 매주 월,화,수,금요일
※특전 : 마드리드 2박 5성급 호텔 업그레이드, 10만원 상당의 플라맹고 음션 포함
[EMP360] 클래식 스페인/포르투갈 9~10일 3,790,000원~ 출발일 매주 월,화,수,금요일
※특전 : 5성급 호텔 2박 업그레이드, 포르투갈 동화 속의 마을, 신트라의 페나성 포함, 랍브라스 거리에서의 여유로운 자유시간 (약 90분)

[APW111-D] [직항]보라카이 5일 가든 리조트 899,000원~ 출발일 4월 ~ 일/월요일
※특전 : 아일랜드호핑투어, 세일링보트, 발마사지, 나이트투어 등
[ABW103-8B5] 푸껫 6일 옥시즌 풀빌라 1,000,000원~ 출발일 4월 ~ 토/일/월요일
※특전 : 리조트&풀빌라 혼합형, 팡아만/피피섬관광 포함, 아프로디테쇼(VIP석) 관람 등
[PPW413-OZS] 팔라우 6일 로얄 리조트 1,690,000원~ 출발일 4월 ~ 일요일
※특전 : 유네스코 락아일랜드 포함, 레전드 스파마사지 1시간, 2일 자유일정 등
[HHW212-HAA] 마우이+오아후 7일 로얄모하이나 + 애스톤 와이키키 호텔 2,440,000원~ 출발일 5월 ~ 토/일요일
※특전 : 미팅/샌딩 포함, 로맨틱 섬일주투어, 하와이 전통마사지 포함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외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종로구청) ■관광불편신고 Tel 1577-1233 \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